

# 10년간 3조원 투입... 남해안을 'K-관광 휴양 벨트'로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개 도시 세계적 관광자원 개발  
광주·목포권 문화 예술 특화... 부산·울산·창원은 해상휴양관광지  
전남 1조3000억 투입 56개 사업... 수상공연장·갯벌치유플랫폼 등

정부가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K-관광 휴양 벨트' 구축에 나선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휴양 벨트 구축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 비용 등을 합쳐 총 3조원을 투입하며, 절반이 넘는 1조 8000억원이 전남 등 남해안권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광주시, 전남도,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남부권 5개 시·도와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5개 시도를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 등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순천, 여수, 진주를 거점으로 하는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로 만들고, 광주·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남서권은 '남도 문화 예술 관광지대'로 조성한다. 또 부산, 울산, 창원, 통영을 거점으로 하는 남동권의 경우 '해양 문화·휴양 관광지대'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전남지역에만 1조 3000억이 투입돼 56개 사업을 추진한다. 개도 이래 최장·최대 규모다. 우선 전남지역에는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해남

땅끝에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수상공연장에 버금가는 수상공연장(사업비 456억원),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319억원)', 강진 '가우도 빛의 숲 관광 갤러리(174억원)', 해남 '목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311억원)' 등 29개 관광시설이 설치된다.

정부는 전남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 1단계 사업으로 2024~2028년까지 '하루 더 머무르는 남해안' 조성을 위해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2~3단계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 27개 사업에 5947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전남 남해안을 지중해, 멕시코 칸쿤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목포 달리도-외달도, 완도 금일도, 진도 관매도 등 보석 같은 섬을 관광 자원화하고, 갯벌과 만, 숲 등을 관광거점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광주와 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남서권에는 섬을 테마로 한 관광 거점이 조성되고, 남도 미식 상품을 글로벌화하는 한편 야간관광 공간 등도 구축된다. 특히 광주의 강점인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유람선 등에도 미래 모빌리티를 접목해 접근성을 강화해 도로변 해안과 산리 등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김영록(오른쪽 두번째)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부산·광주·경남·울산 단체장, 5개 시·도 남부권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제공>

문광부는 전남과 광주, 부·울·경이 함께하는 '통합협의체'를 만들어 권역별 관광루트 발굴, 연계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문광부의 이번 발표는 경제수도 수도권, 행정수도 충청권에 버금가는 '관광수도 남부권' 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으로 10년 뒤인 2033년이면 남부권, 특히 전남은 지중해나 멕시코 칸쿤을 능

가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부권이 경제수도인 '수도권'과 행정수도인 '충청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관광수도도 거듭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부의 이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은 2021년 기본 구상단계에서 6800억원 규모였던 것이 3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민선 6기 때부터 6년여간 남부권을 '신해양-문화 관광·친환경 수도'로 육성하는 밑그림을 그려온 전

남도의 열정과 끈기,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이 이룬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는 물론, 부산·경남과도 2018년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으로 손을 맞잡았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광역철도·도로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 우주산업,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국제 이벤트, 남해안 종합개발정 설립 등 신 남해안 시대를 준비를 끊임없이 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18개 공공기관 연구 역량 한곳으로 모은다

市 산하 기관 '정책연구회' 출범...현안 해결·미래상 제시 등

광주지역의 다양한 연구 역량을 모으기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인 광주정책연구회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연구원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설립한 광주정책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18개 기관은 이날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광주의 현안 해결과 미래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지식생태계 싱크넷(Think-net)을 표방하는 광주정책연구회는 융복합적 협력을 통해 광주 도시 미래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간의 공동정책연구 네트워크 조직이다. 광주정책연구회는 18개 공공기관의 특성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 정보교류, 정책포럼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주정책연구회는 앞으로 분기별 실무위원회와 연 1회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

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광주정책연구회 분과 및 참여기관은 ▲경제·산업 분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그린카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도시·환경 분과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회·복지 분과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문화·관광 분과 광주관광공사,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지역학 분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영어방송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서비스 확대

주민 조례·투표 서명 등 참여

광주시는 "주민참여제도 통합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 구축한 '주민e

직접'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간편인증과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 조례·주민투표·주민감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청구와 온라인 의견 조사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진아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주민e직접'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온라인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전국 최다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하기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000명에게 236억원, 하계작물은 4000명에게 133억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식료, 하계 논·벼·가뭄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논콩 등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 1828ha에 3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략작물 직불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 1875ha에 대해 37억원을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 에너지기업, 우즈베크 진출 '속도'

태양열 제조 등 600만달러 협약

우즈베키스탄의 오이베크칼라예프 사마르칸트주 부지사(사)와 기업 대표단(11명)이 태양열 발전기업인 ㈜금철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전남 에너지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해외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는 전남의 에너지산업 분야와 우수한 농산물, 스마트팜 등에 관심을 갖고 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나주에 있는 Y마

트 협회, ㈜금철을 방문해 기술제휴 및 자국 내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금철은 슈하라트 기업과 태양열 기술이전, 제조·판매 관련 한화 약 80억원(600만 달러) 규모의 협약(MOA)을 했다.

금철을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4개 기업은 사마르칸트주에 위치한 ▲고려인 노인 복지센터 태양광·열 발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한화 약 4억원) ▲공장 의무발전시설 설치물량 60kW 발주 등 큰 성과를 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